

영화 운동가의 초상과 독립 영화 운동의 풍경

—이효인, 『한국 뉴웨이브 영화와 작은 역사』 (한상언영화연구소, 2021)

문관규*

국문초록

〈한국 뉴웨이브 영화와 작은 역사〉는 한국영화운동사와 영화운동가의 꺾인 삶이 집약되었다. 1부는 1978년 부산에서 상경하여 대학 주변의 자취방과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서울에 뿌리를 내리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모습을 담았다. 1부는 저자가 만났던 학과 친구와 사회과학 공부를 함께 한 이념 서클의 선배들 그리고 대학 주변의 술집과 세미나와 합숙하는 풍경들이 배치된다. 세미나의 풍경은 한 세대의 역사적 시간과 추억이 정박해있다. 1부의 마무리는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된다. 저자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기를 온 몸으로 통과하면서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변혁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1부와 2부에 배치해두었다. 2부는 사적 체험을 수반한 영화활동가의 삶과 한국 영화 운동의 역사가 새겨졌다.

1980년대는 대학의 영화 동아리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는 시기였다. 저자는 경희대의 〈그림자 놀이〉라는 영화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이는 영화계로 향하는 출항지이다. 소설가는 기억과 회상의 힘으로 집필한다는 벤야민의 전언처럼 저자는 지나온 시대의 궤적을 눈 위의 발자국처럼 또렷하게 새겨두고 있다. 저자는 1985년 9월 대학에 복학한 후에 영화 동아리 〈그림자 놀이〉에 입회하였다. 〈그림자 놀이〉의 동아리 방의 위치와 현재 한국영화계에 활동한 분들의 대학 동아리 시절의 이력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이후 열린 영화에서 활동과 서울 영상집단에서 활동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지난한 행보가 역사와 개인사의 씨름과 날출로 엮어졌다. 긴 영화운동의 시기를 거처서 저자는 강화도에 정착하여 한국영화사를 집필한다. 만 32세의 영화 운동가이자 실천가였던 저자 이효인은 〈한국영화역사 강의 1〉를 탈고하여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1992년 2월에 출간한다. 1985년 영화운동에 투신했던 청년 이효인은 열린 영화와 서울영상집단에서 치열한 삶 그리고 〈파랑새〉의 제작과 투옥 그리고 민족영화연구소의 창립이라는 숨 가쁜 영화운동가의 궤적을 이끌어왔다. 이 모든 궤적은 한국 뉴웨이브의 치열한 단면이며 시대고과 시대정신이 한국영화사를 풀무질하는 긴 여정이었다. 이 저서는 이와 같은 영화운동가의 궤적을 담은 사적인 기록이자 그가 통과한 한국현대사와 한국영화사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www.kci.go.kr

*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1. 한국 뉴웨이브 영화의 미시 역사

2022년 겨울 경희대 캠퍼스는 적막했으며 다만 등산객들 몇 분이 발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산 능선을 따라 걷고 있었다. 필자도 저자이신 이효인 교수와 함께 그 능선을 따라 걸으며 일상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 책은 흰 표지에 검은 글자가 새겨진 <한국 뉴웨이브의 영화와 작은 역사>였다. 한국 뉴웨이브는 영화를 공부하는 학인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용어이지만 그 옆에 덧붙여진 ‘작은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다. 저자 이효인 교수와 마라탕 안주 삼아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시고 나서 필자는 경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가방에서 책을 꺼내 머리맡과 목차를 일독하였다. 비로소 작은 역사의 의미가 막연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 책의 1부는 1978년 부산에서 상경하여 휘경동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자취방과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서울에 뿌리를 내리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모습이 소설적 문체에 담겨있다. 1부는 영화 운동, 더 정확하게는 영화를 통해 사회와 역사에 참여하고 한국 영화사에 대해 집필하는 영화 운동 이전의 학생운동에 전념한 운동권 대학생의 삶이 더 또렷하게 새겨져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1부는 저자가 만났던 학과 친구와 사회과학 공부를 함께 한 이념 서클의 선배들 그리고 대학 주변의 술집과 세미나와 합숙하는 풍경들이 고즈넉하게 담겨있다. 이 부분은 그 시기를 통과한 많은 분들에게 과거의 역사 지층에 새겨진 개인사를 자연스럽게 환기한다. 1부에서 흥미롭게 읽었던 지점은 1980년대 대학생들의 독서 풍경이다. 1980년대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여서 공부를 했던 모습과 전설적인 사회과학 저서들과 대면하는 것은 역사의 한 순간으로 되돌아가 역사와 재회하는 맛을 부여한다. 그 당시 대학생들은 학교와 학과와 관계없이 모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공통된 도서 목록을 정하여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독

회하고 독과하였다. 필자가 대학에 다녔던 시절과 큰 차이가 없는 독서 목록은 민주화 시대라는 역사를 관통했던 지적 분위기를 가늠하게 한다.

“그 때 읽은 책으로는 광민사에서 나온 노란색 표지의 『노동의 역사』가 유독 기억난다. 세미나 하기에 알맞게 적당히 얇았고 내용도 쉬운 편이었다. 그 외 한길사에서 갓 나온 <해방 전후사의 인식>,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등 2달에 세 권 정도씩 같이 읽거나 각자 읽은 책들을 술자리 등에서 소개하곤 했다.”

1980년대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학습은 거름 출판사의 『철학에세이』, 한길사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입문서이자 필독서로 독과하였다. 1980년 중반 선배 자취방의 책장에 진열된 책들도 한길사에서 나온 두꺼운 사회과학 명저들과 창작과 비평에서 출판된 도서들, 거름, 동녘 출판사에서 사명감으로 출간한 서적들이 즐비하게 꽂혀있었던 풍경이 소환된다. 대학생들의 도서 목록은 그 시대 청년 학도들의 지적 공급원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적 자료이며 개인의 기억을 경유하여 공적 장으로 확산된다. 세미나의 풍경은 소설처럼 흥미롭게 묘사되어 힘든 시절을 통과한 현재의 시간에서 추억의 스펙트럼에 정박한다. 청담동 합숙 시절은 “하루에 오전 오후 나눠서 세미나를 두 번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식당 당번 외에는 다들 책을 읽었다. 오후 세미나가 끝나면 저녁 식사 후에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술을 마시거나 카드놀이를 했다”로 환기된다. 1980년대 세미나는 함께 식사를 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합숙과 합식으로 진행한 그 당시 대학생들의 공부 방식이었다. 세미나 학습은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고 공부를 마치고 나면 길고 낭만적이며 전투적인 뒷풀이 자리에서 밤을 새워 이어지는 정치 토론과 민중 가요를 합창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대학생 시절 학습 조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공부는 지속되었다. 이 풍경은 홍릉의 옥탑방 합숙 묘사에서 거듭 등장한다.

“하도 외풍이 세서 다들 이불 속에 누워 책을 읽었고, 세미나를 할 때는 담요 등을 뒤집어 썼다. 누구 한 명이 화장실이라도 갈라치면 ‘나가는 김에’ 연탄불 갈기, 담배 심부름, 빨래 걷기 등을 부탁했기에 서로 끝까지 참고 누워 있곤 했다”

어려웠던 시절에 동지적 연대감으로 진행된 사상 학습의 상황은 현재의 시간에서 회고하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련하게 자리하고 있다. 1부의 마무리는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된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가 심복인 김재규의 총탄에 서거하는 10·26이 발발한다. 그 역사적 풍경은 사적 기억을 통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반응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나는 하숙방 문을 열고 나와 외쳤다. “여러분 삼폐인을 터트립시다!” 마루에서 밥을 먹기 위해 서성이거나 세수를 하러 오가던 다른 하숙생들이 나를 이연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표정이었다.”

10·26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민주화를 열망한 개인에게는 축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하숙생들은 장기 집권한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 동정의 시선으로 대통령의 서거로 수용한 것은 역사의 다층적 풍경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1980년대는 격동의 시기이자 민주화의 여정에서 정점을 향해가던 가파른 시간이었다. 그 시기에 첫 발을 내딛는 1980년은 모국어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상처들로 각인된 연표였다. 1980년이라는 뜨거운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서울역 회군이 있었다. 여러 후일담 소설과 회고록은 서울역 회군에 대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소설적 우회를 통해 강변하거나 변명한다. 저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른 분의 기억을 경유하여 객관적인 거리를 두면서 역사적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어두워지면서 학생 회장단은 다시 군중들에게 해산을 결의했다고 알려왔다. 경희대도 그 결정에 따라서 해산하기로 하였다. 이 때 해산을 어느 개인이나 그룹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황은 전개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희대의 경우도 학생회장단의 결정을 듣고 해산을 결정했을 때 그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가 본 바로는 당시의 운동권 사람 중에서는 이효인만이 들고 있던 막대기를 땅에 팽개치면서 욕을 해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외에는 순순히 그 결정에 따랐다”

이 회고록은 서울역 회군의 결정과 시위대가 해산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담겨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필자는 역사의 한 장면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목도하였다. 시간의 거리를 둔 독자의 감정도 쓸쓸한데 역사의 현장에서 온몸을 던졌던 20대 학생에게 야기된 심경의 동요에 대해 물끄러미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은 벤야민이 1926년 12월 6일부터 1927년 2월 1일까지 혁명의 도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나서 집필한 <모스크바>일기와 흡사하다. 벤야민은 모스크바에서 체류하는 동안 공연과 영화를 관람하고 모스크바 인민을 혁명의 분위기라는 렌즈로 관찰하였다. 혁명의 분위기는 영화와 만남으로 더 날카롭게 수용할 수 있었으며 10년 후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시각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거나 간과한 것을 카메라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고 무엇을 보여주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려고 하였다. 이효인 선생은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기를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민주화 운동기에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체험을 통한 실천적 해답을 이 책에 과장하지 않고 배치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힘든 무게감을 부여한다.

2. 한국 뉴웨이브의 발원지 : 경희대 그림자 놀이와 대학로 <열린 영화>

1980년대는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가 본격적으로 결성되는 시기였다. 서울대 <알라성>, 고려대 <돌빛>(1983) 등이 등장하였으며 경희대에서도 <그림자 놀이>라는 영화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알라성 중심의 영화 동아리 활동이 기존의 독립영화의 장에서 지나치게 비중있게 언급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조명에 소홀한 <그림자 놀이>에 대한 귀한 사료들이 저자의 탁월한 기억력으로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두텁다. 소설가는 기억과 회상의 힘으로 집필한다는 벤야민의 전언처럼 저자는 지나온 시대의 궤적을 눈 위의 발자국처럼 또렷하게 새겨두고 있다. 저자는 1985년 9월 대학에 복학한 후에 영화 동아리 <그림자 놀이>에 입회하였다. 동아리 그림자 놀이에 대해서는 동아리 방의 위치부터 그 당시 소속된 구성원들의 면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과 추억을 마주할 수 있는 기쁨을 맛 볼 수 있다. 영화 동아리 <그림자 놀이>의 동아리 방의 위치와 현재 한국영화계에 활동한 분들의 대학 동아리 시절의 이력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자 놀이> 동아리방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교시탑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젠 호텔경영대학이 된 호텔경영 전 문대 건물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원 모양의 AW센터가 있다. 그곳 3층에 영화 동아리인 ‘그림자 놀이가 있었다.’”

그 당시 구성원은 ‘곽재용(물리)은 16밀리 필름으로 만든 <선생님 그리기>로 청소년 영화제 작품상을 받고는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김인수 감독은 1980년대 학생운동의 열풍 터널을 거친 후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해변으로 가다>(2000)로 감독 데뷔 하였으며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라는 작품은 저자가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고, 곽재용

감독이 촬영한 8밀리 단편영화였다. 이 작품은 “한 청년이 서울에서 겪는 슬픈 생활을 담은 영화 같은데, 제목은 양성우의 시 <꽃상여 타고>에 나온 시구에서 가져온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였으며 이 제목은 훗날 홍기선 감독의 데뷔작에 가져다 썼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홍기선의 장편 영화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는 양성우의 시이자, 저자 이효인의 단편영화 제목이었다. 대학 동아리 그림자 놀이에서 서울 영화집단으로 향하는 길목에 대학로의 카페 8과 1/2이 자리하며 그곳에서 <열린 영화>라는 계간지를 만들었던 젊은 편집위원들이 비로소 등장한다. 계간지 <열린 영화>는 이세민 감독이 대학로에서 운영하던 카페 8과 1/2에서 작업하고 발간하면서 미래의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던 장이었다.

“이세민 감독의 영업장이었지만 계간 <열린 영화>의 사무실, 카페 한 구석에 따로 나뉜 작은 공간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책상에는 이런저런 책들과 필름 깡통도 몇 개 있었다. 세민 형의 배려로 그곳을 회의 공간으로 쓸 수 있었고, 밥 때가 되면 공짜로 종업원이 하이라이스 등을 갖다 주었다”

<열린 영화>는 4호로 폐간되었지만 전양준, 정성일, 유지나, 안동규로 대표되는 편집위원은 이후 한국 뉴웨이브를 이끌었던 영화 평론가와 제작자로 현장에서 활동한다. <열린 영화>는 공안 당국의 압력이라는 공권력에 의한 억압과 후원자인 이세민 감독의 사재를 통해 발행한 재정적 후원의 한계로 이쉽게도 폐간의 수순을 밟게 된 것 같다.

3. 한국 뉴웨이브의 거센 물결 : 서울영상집단과 <파랑새> 사건

계간 열린 영화가 폐간되고 저자는 안동규의 소개로 서울영화집단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다. 당시 서울 영화 집단의 구체적인 장소 위치와 사무실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울영화집단은 용싸롱 이층에 있었는데 용싸롱 옆에 뚫린 입구로 들어서면 삐걱대는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야 했다. 가파르고 위태위태했지만 막상 오르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실내에는 그나마 채광이 되는 큰 창이 있었다. 간판은 당연히 없었고 다 쓰러져 가는 건물에 억지로 올린 듯한 2층 공간은 그냥 좀 큰 자취방 같은 곳이었다”.

서울영화집단은 독립영화에 관한 기록에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사무실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는 부재하였으며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존재였다. 저자의 상세한 기술로 인해 서울영화집단의 실체가 구체화되면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는 긴장감을 부여한다. 서울영화집단은 서울대 알라성 출신을 중심으로 박광수, 김동빈, 황규덕, 송능한, 김홍준이 참여하였지만 이 분들의 행보에 대해 ‘유학 가거나 아카데미에 진학하거나 충무로 조감독으로 일하거나 혹은 그 근처에 있었다고 기술되며 동국대 문원립 교수를 중심으로 알라성 후배 몇 명 참여하는 세미나를 루이스 자네티의 <영화의 이해> 영문책으로 스터디하는 증언을 통해 그들의 학습 방향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루이스 자네티의 영화입문서를 공부하면서 스터디를 마치면 술판을 벌이는 다소 낭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영화집단에서 저자와 홍기선, 이정하 중심으로 활동가가 재편되는 과정은 사적인 기억을 통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대목에서 독립영화연구자에게 미시사의 행간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지적 흥미를 촉발한다. 그들의 갈등은 의외로 사적인 문제

였다. 그것은 술자리에서 알라성 출신의 후배들이 선배인 고 흥기선 감독을 놀리는 문제에서 촉발된 감정적 갈등에서 야기되었다.

“매일 출근하며 사무실을 지키는 형에게 가끔 얼굴이나 내미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항의했던 것이다. 원래 결속력도 없었고 다들 제작력이 있었던 터라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들은 사무실을 나온 적은 없었다.”

서울영상집단은 이와 같은 사건을 거치면서 서울대 동아리 출신은 퇴각하고 흥기선, 이효인, 이정하, 변재란 중심으로 재편된다. 주요 활동은 ‘대학 학생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간 서영집에서 만들었던 필름과 8밀리 영사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가서는 틀어주는 일’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중반을 통과하면서 민주화의 열망과 투쟁의 강도가 더욱 고양되어 간다. 여기에 대응하여 역사의 한복판에서 카메라를 든 서영집에서 활동한 저자의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고단해진다. 당시의 격렬한 상황은 “우리는 8밀리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자주 시위현장에 나갔다. 어떨 때는 운동 단체나 기독교 청년 운동단체로부터 시위나 행사 촬영을 의뢰” 받아 “나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최전방에서 촬영을 하였다. 사람들은 내가 방독면을 쓰고 촬영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만큼 극성”이라는 기술에 배어난다. 저자는 역사의 현장에 뛰어들어 카메라에 기록하였으며 선전 선동을 위해 제작과 상영 활동을 병행하면서 결국 <파랑새>의 제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파랑새>는 “우리는 그 때 모든 게 공동 창작으로 해야되는 줄 알았어요, 단독으로 내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갖고 공동 창작, 공동 연출(『영화운동의 최전선』(한상언 편, 2022))로 진행되었다. 이 작품은 외국소 수입 개방에 따른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다루었다. 제작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

면의 백석 마을에서 진행하였다.

“어느 시골집 방 한 칸을 얻어 지내며 우리는 밥을 직접 해 먹으면서 낮에는 농사일을 거들었다. 새벽 신은 일하기 시작 전에, 낮 장면은 오후 5시 정도 일이 끝나면 찍었다. 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30대 중반 아저씨는 소 값 폭락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려는 것을 경찰들이 마을 입구에서 막자, 소를 끌고 산으로 넘어서 전주까지 갔던 사람이었다.”

제작팀은 전라북도 농촌에 내려가서 직접 현장을 담아내서 농촌의 모습과 원형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던 과정이 꺾임없이 기록되어 읽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파랑새>는 공동 작업으로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연동되어 전국 순회 상영도 감행하였다. 순회 상영 뒤에는 주민들과 어우러져 저녁 술자리를 하면서 농민들과 강한 연대감을 나누었던 소회를 소설처럼 묘사하였다. 1986년 신촌의 우리마당에서 서울 공개 상영회를 개최하여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하였다. 1986년 10월 10일 전후에 저자는 성북경찰서로 연행되어 가혹한 고문과 고초를 겪게 된다. 그 상황은 리얼리즘 영화 장면 보다 더 섬뜩하다.

“한 시간쯤 지나서 몇 명이 들어와서 무작정 패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한 명이 나를 책상에 앉히고는 내가 읽은 책, 만난 사람, 활동 내역 등 모든 것을 어릴 때는 물론 대학 입학 후부터 상세하게 쓰게 했다. 후들거리는 손으로 겨우 몇 장 쓰고 나면 욕설과 함께 손찌검이 이어졌다. 익히 아는 대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지?”, “너 빨갱이지”, “너 하나쯤 여기서 죽어나도 아무도 모른다” 등의 협박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쓰게 했다”

당시의 상황이 <변호인>의 영화에 등장한 독서회 회원들의 폭력적 취조 상황과 데칼코마니된다. 저자는 재판과 이후 상황을 생략하거나 약술

한다. 피고 진술에서 “<파랑새> 영화 제작의 정당성을 피력하였다”고 간략하게 약술하였다. 저자의 법정 진술은 『변방에서 중심으로』(서울영상집단 엮음, 19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민중문화운동과 영화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표현의 자유와 예술창작의 자유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략)…영화는 결국 국 사회 현실과 무관한 예술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정치 경제적, 사회문화적 모순을 파헤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모든 대중들, 노동자 농민 형제의 고통과 아픔 우리 이웃에 술한 불행과 슬픔에 영화는 동참해야 하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파랑새> 사건은 <파랑새>의 상영으로 촉발되었다기 보다는 <부활하는 산하>의 연세대에서 상영으로 인한 공안당국의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안당국은 <부활하는 산하>를 제작한 집단을 서울영화집단으로 미리 상정하고 그곳에 활동하는 홍기선 감독과 저자를 구속하여 무리하게 처벌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일종의 표적 검거였던 셈이다. 미리 범인을 정해놓고 범죄를 구성하는 과정에 홍기선 감독과 저자가 연루된 정황이 엿보인다. 저자는 1987년 3월에 출옥하여 1987년 중순에 서울영상집단과 결별한다.

“서울영상집단은 1987년 중순에 해산하였다. 나는, 1986년에 재결합한 그들을 대상으로 <파랑새> 사건을 계기로 신뢰를 잃었다고 면전에서 말해버렸다. 홍기선과 이정하도 그 점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내 사정을 고려해서 동의해줬는지 알 수 없다. 상대방들은 운동 노선의 차이에 의한 분리라고 해명/주장했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들이 서울영상집단이라는 명칭을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명칭 사용에는 동의를 해줬다”

서울영상집단과 이효인, 이정하의 결별은 <파랑새> 사건 때 서영집 회원들의 동지적 신뢰와 연대감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서울영상집단에서 펴낸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는 “서울영상집단은 이른바 ‘파랑새 사건’을 겪은 후인 87년 초, 영화 운동 상의 입장 차이와 내부 문제로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으로 기술하고 있다. 서울영상집단의 해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하는 위치에 따라 입장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공적인 기억과 사적인 기억은 집필자의 계급적 입장과 역사관에 따라 상이하게 기록되기도 한다. 기술의 추상과 객관의 이름으로 모호성의 범주에 역사가 들어있다. 공적 역사와 사적인 기억의 기술이 혼재된 이 저술은 개인과 집단의 만남과 긴장이 영화역사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미시적 사실과 주류 저서에서 가려진 또 다른 진실을 상호 대조할 수 있는 사료의 가치가 돋보인다. 서영집의 인적 교체는 『영화의 이해』를 스터디 하던 낭만적인 그룹들이 자신 철수하면서 저자 이효인 선생과 홍기선 감독 그리고 연대 영화 동아리 출신으로 전환을 촉발하였다. 이는 느슨한 동아리의 안일함을 일소하고 변혁운동기 영화 집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찾아가는 길로 접어든 계기로 주목된다. 서영집과 결별은 동지적 연대감과 신뢰의 상실로 인한 결단으로 읽을 수 있다.

4. 민족영화연구소 그리고 한국독립영화협의회 결성과 민족영화연구소 해소

서울영상집단에서 민족영화 연구소의 창립 사이에 지미필름 입사와 퇴사라는 충무로 경험이 징검다리로 존재한다. 그리고 지미필름 퇴사 후 영화평론가 이정하와 의기투합하여 민족영화연구소 창립의 깃발을 들게 된

다. 저자와 이정하 평론가는 “둘 다 아나키스틱했다는 점에서 기질이 맞았고, 1980년을 겪은 공감대 그리고 청년 영화인들 사이에서 둘만 유독 학생 운동권이나 사회운동권과 연이 닿아있거나 이해도가 있었던 점” 때문에 1988년 민족영화연구소 창립을 도모한다.

민족영화연구소는 1988년 9월 9일에 공식 창립한다. 참여한 영화인은 이수정(다큐 감독), 구성주, 민병진, 이상인(한양대 교수), 김응수, 김준종(부천영화제 사무국장), 김혜준(전 영진위 사무국장) 등 이다. 민족영화연구소는 방대한 활동과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엄격한 규율 속에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했으며 작품을 만들었고, 식사는 사무실에서 같이”하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였다. 운영 방법은 “모든 회원들에게 월별 활동비를 지급하였고 수입과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수입은 주로 비디오 제작물 판매, 출장 상영과 강연, 프로젝트 제작 의뢰 등이었고 지출은 사무실 운영비, 제작비, 활동비 및 기본 식대” 였다. 민족영화연구소는 『영화운동의 최전선』에 사진 자료와 포스터 회칙 등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민족영화 연구소의 해소는 ‘1989년 탄탄한 관계가 느슨해지고, 주변의 감시망 좁혀져 온다는 것, 그리고 영화 <파업전야>로 인해 영화운동의 산물이 흥행 성공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영화제작에 대한 회원들의 열망이 커지면서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의하여 이루어졌다. 민족영화연구소의 해소는 또 다른 길로 접어든 계기였으며 그 길은 바로 한국영화사 집필이었다.

5. 강화도에서 『한국영화역사 강의 1』 집필

저자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2년을 강화도에서 생활하였으며 이 시기에 『한국영화 역사 강의 1』 라는 한국영화사 집필에 전념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강화도의 생활 풍경과 한국영화사 집필을 위한 자료 준비 그

리고 집필에 전념한 모습이 소설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강화도의 삶은 “옆 집 손가락의 개수도 아는 동네이고 주민 90% 이상이 망월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곳이었다. 아내는 주말이면 애를 업고 교회를 나갔다. 젊은 부부가 우리를 포함하여 돌밖에 없는 마을에서 딸아이 산이는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묘사로 당시의 강화도 삶을 헤아려 볼 수 있다.

강화도에서 저자의 삶은 독립된 생활보다 마을 공동체에 포섭된 삶에 가깝다. 가족은 강화도에서 교회를 다니고 젊은 이주자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밤에는 한국영화사 집필을 강행했다. 한국영화사 집필 풍경은 세 가지가 인상적이다. 하나는 “그 때 나는 한국영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써 보겠다는 웅골찬 결심”을 하였다는 비장한 각오이다. 저자의 민족과 민중적 시각에서 독창적인 한국영화사의 집필 의지는 영화운동가의 열기가 돋보인다. 카프 시기 영화운동의 인자들의 활동은 다양했지만 기록을 남기고 한국영화사 연구의 초석을 닦거나 주춧돌을 올렸던 이는 드물었다. 카프 영화인들이 전향하거나 생존의 세계로 투항하였던 아쉬운 행보를 이미 간파한 영화사가 이효인 선생은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여정은 영화운동가의 시각에서 집필된 한국영화사의 완성을 가능케 하였다. 두 번째는 “초저녁 잠이 많은 나는 9시 MBC뉴스 데스크를 보고 자리에 누웠고 새벽 두 세 시에 깨어서 여덟시 정도까지 글을 썼다.” 아놀드 하우스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를 집필하는 삶을 영위했다고 한다. 저서 집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직 업무마저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집필의 시간을 늘려갔다고 한다. 이효인 선생도 9시 30분에 취침하여 새벽 두 세시에 기상하여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면서 아침 여덟시까지 강행하여 하루에 평균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을 집필하는 일행 삼매의 수행을 1년 반 남짓 감행하여 『한국 영화 역사 강의 1』를 탈고하기에 이른다. 세 번째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담은 김장은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었다. 아이는 이집 저집에서 사

량을 받았고, 벼가 파릇파릇 올라오는 논에 맨발로 들어가곤했다. 서재에서 자고 있노라면 아이는 뿔뿔 기어서 마루를 건너와 강아지처럼 내 얼굴을 핥았고, 달과 돼지를 친구처럼 대했으면 외출할 때는 “집 안녕”하며 말했다.” 마을 공동체의 평화로운 풍경은 세 문장에 담겨있다. 동네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딸 이산은 동네 사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과도 친구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관통하고 있다. 낮의 평온한 시간은 밤의 집필 시간을 위한 준비와 숙성의 시간이었다. 마을 공동체의 연대감에서 숙성된 정서는 새벽 집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마천도 사기 집필을 위해 명산 순례를 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고 집필의 결의를 다졌던 것처럼 강화도라는 자연과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한국 영화사 집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만 32세의 영화운동가이자 실천가였던 이효인은 『한국영화 역사 강의 1』을 탈고하여 이론과 실천 출판사에서 1992년 2월에 출간한다. 1985년 영화운동에 투신했던 청년 이효인은 열린 영화와 서울영상집단에서 치열한 삶 그리고 <파랑새>의 제작과 투옥 그리고 민족영화연구소의 창립이라는 숨 가쁜 영화운동가의 궤적을 이끌어왔다. 이 모든 궤적은 한국 뉴웨이브의 치열한 단면이며 한국영화사가를 풀무질하는 긴 여정이었다. 영화운동가에서 영화사가로의 전환은 이후 박사 논문의 완성과 경희대에서 후학 양성 그리고 『한국 뉴웨이브 영화』(2021)와 『한국 뉴웨이브 영화와 작은 역사』(2022)로 이어지는 한국 뉴웨이브의 연구자로서 확고하게 자리 매김하는 학자의 도정을 수놓고 있다. 영화운동가의 시선으로 한국영화사를 조망한 『한국영화 역사 강의 1』과 『한국 뉴웨이브 영화와 작은 역사』는 자연인 이효인을 한국영화사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확고한 발자국을 남긴 영화인의 위상을 부여하였다. 이 사실은 후일 한국영화연구자들이 친절하게 입증할 것이다.